우유로부터 시작되는 하루

서울보광국민학교
교사 조 민 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힘찬 모습들이 오월의 푸르름을 한층더 눈부시게 한다.

지금쯤 학교를 향해 달려오는 우유급식 차는 복잡한 교통체증에 늦어지고 있는것은 아닐런지?

우유급식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고 선뜻 글이 떠오르지 않아 무척 망서렸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영양상태에 관심을 갖고 지도했나. 그동안 나는 우유급식과 건강에 대한 함수관계를 생각해 본적이 있었던가? 그저 으레 "국가시책"이고 "학교시책"으로 심부름군 노릇만 한것은 아니었던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적어 보려한다.

몇년 전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우유급식에 대한 가정통신문에 "어머님의 미장원 한번 가시는 값으로 어린이에게 완전 식품인 우유를 먹이도록 합시다'라고 적어 내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어느 선생님께서 그 문구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하시기에 몇회만에 고쳐 내보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침을 제대로 먹지않고 학교로 오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모두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생각에서 어머니들께 호소한 것이었지만 나의 편견일 수도 있어서 시정했던 것이다.

학교급식 상태를 보면 저학년 일수록 급식아가 많은 반면 고학년에 갈수록 우유 신청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키 보다 작았던 일본민족이 지금은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것은 그들의 식생활 개선이 주된 이유였고 영양소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우유급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또 우유에 대해서 아무리 널리 알려져 있더라도 좀더 홍보면에도 신경을 써서 관심이 없어져 가는 고학년,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V.T.R이나 슬라이드 등 여러가지 우유와의 생활을 주제로한 드라마 같은 것을 제작하여 학교마다 순회하며 지도한다면 어린이들과도 더욱 친숙한 만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각 학교에서의 우유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더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식보가 약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먹는 음식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다.

우유는 영양소의 보물 덩어리 이면서도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B_1, 비타민12…… 거의 완전식품인 우유를 우리나라 어린이 전체가 고루 매일 마시게 된다면 얼마든지 평균 신장과체중이 늘어날 수 있을텐데.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서라도 전국어린이에게 고루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더 배려를 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자신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욱 한개의 우유 급식이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학교 모든 어린이가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